

國際協力과 國際分業의 必要性 增大



韓 鳳 洙
(韓國原子力産業
會議 會長)

尊敬하는 李 寬科學技術處長官, 그리고 멀리서 오신 外國參加者와 國內原子力界 人士여러분!

오늘 제3회 韓國原子力産業會議 및 韓國原子力學會 合同年次會議를 맞아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會議는 1986년 4월 韓國을 비롯한 開發途上國의 原子力開發과 그 運營管理에 대한 여러 問題點을 토론하는 機會를 마련하고자 창설되었으며, 그 첫會議를 개최한 이후 올해로 세번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原子力技術이 先進國에 偏在되어 있는 반면, 原子力設備는 先進國에서 開發國으로 계속 流入되고 있는 흐름을 감안할 때 앞으로 原電保有 開發國의 技術自立문제는 어떤 特定國에만 국한되지 않는 全世界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953년 12월 美國 아이젠하워대통령에 의하여 「原子力の 平和的 利用」(Atom for Peace)이 제창됨으로써 시작된 原子力産業은 그후 35년이 지난 현재 原子力發電부문에서만도 26개국에서 4백기가 運轉中이며, 그 設備容量은 2억9천만 kW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90%를 先進國에서, 10% 정도를 開發國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原電을 보유한 開發國이 크게 늘어날 것인 만큼 이제 原子力技術移轉이 없는 原子爐 수출은 「참다운 原子力の 平和的 利用」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지금까지의 原子力國際會議가 주로 先進國에서 개최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開發國인 韓國이 그 年次會議를 國際會議로 확대하여 개최한다는데 그 큰 意義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原子力開發의 현황을 보면 현재 運轉중인 것이 7기에 571만6천kW로서 全體發電設備의 30%에 이르고 있으며, 電力生産量은 393억 kWh로서 全體發電量의 50%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建設중인 것이 2기이며, 2기가 또 계획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의 設備利用率은 평균 80%란 높은 실적을 거두었으며, 發電原價면에서도 1kWh 당 24원을 기록함으로써 石油의 115원, 有煙炭의

32월에 비해 월등한 經濟性을 實證한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成果는 그동안 國內 原子力産業界 關係要員들의 많은 노력과 外國과의 긴밀한 國際協力에 힘입은 것이라 믿으면서 이 機會를 빌어 그동안의 協力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會議는 「未來의 原子力發電 開發戰略」이라는 基調테마 아래 原子爐 戰略, 核週期 開發戰略 등에 관해서 國內外 原子力 지도자들의 論文이 발표되고 또 토론될 것입니다. 이 基調테마는 原電運轉 10년을 맞는 우리나라의 當面課題와도 관련되는 것입니다.

과거 10년간 2차에 걸친 原子力發電所의 重大事故로 말미암아 開途國에서 힘겹게 이룩한 安全性 基調에 많은 影響을 주었습니다.

先進國의 運轉經驗과 安全의 信賴性에 의존해 오던 國民의 原子力에 대한 理解와 受容態勢는 TMI와 체르노빌事故 이후 原電開發에 대해 우려를 가져오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밖에도 技術移轉의 한계성, 先進國에 의한 過重한 安全規制의 적용 등으로 技術自立의 條件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原子力開發戰略은 技術自立과 함께 安全性과 信賴性에 대한 스스로의 터전을 다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會議가 이러한 상황속에서 개최되는 자리만큼 아무쪼록 開途國의 실정에 적합한 原子爐의 開發戰略에 관한 유익한 提案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課題가 되고 있는 것은 開途國에 있어서의 核週期戰略問題로서 이에 대한 技術的, 經濟的 장애요인은 國際協力과 國際分業의

바탕위에서 슬기롭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未來의 原子爐로서 標的이 되고 있는 高速增殖爐와 核融合爐에 대한 開途國의 受容態勢와 그 基本技術의 開發戰略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하는 문제도 다음 世代를 대비하는 큰 課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意味에서 原子力の 國際協力은 이제 先進國과 開途國의 어느 一方에 의해서가 아니라 雙方의 理解속에서 共同의 關心事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체르노빌原電事故 이후 IAEA가 중심이 된 東西간의 原子力安全協力體制와 각 지역에서 대두된 地域協力體制의 강화 움직임은 國際協力の 진전이라는 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原子力發電에 대해 한국이 안고 있는 여러 課題는 많은 開途國이 부딪혀야 할 共通의 課題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제3회 年次會議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先進國과 더불어 그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解決方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國內 原子力界 인사들께서는 外國의 原子力界 지도자들이 來韓한 이러한 機會를 십분 활용하여 그들의 經驗과 技術水準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會議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外國 參加者 여러분에게 韓國의 原子力界를 대표하여 깊은 感謝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訪韓이 '88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는 韓國의 참모습과 아름다운 自然景觀을 둘러보는 좋은 機會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